2010년에는 공연·미술 장르 예술인들의 축제인 '2010광주종합예술제'가 신설된다. 사진은 광주현대무용단의 '천개의 공감' 공연 모습.

광주시 내년 문화 예산 713억원

종합예술제, 5·18 전경화 제작 등 신규 사업 확정

옛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30억·북구시화마을 30억

지난해보다 50억여 ↑ … 문화 바우처·인프라 확대

2010년 광주시 문화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년 광주시 문화관련 본예산은 모두 713억여원으로 지난해 665억여원보다 50억여원이 늘었다.

▲눈에 띄는 신규 사업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바우처'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예산은 1억 3천 900만원으로 전액 복권기금으로 지원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비를 매칭, 모두 3억 4천 6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각 장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2010 종합예술제'(2억5천만원)와 예술의 거리 궁동예술극장 상설공연(1억 3천만원), 빛고을 공예작품 공모전(3억원), 브랜드 게임 파일럿 제작지원(1억원)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

또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경화 제작'(3억원)은 색다른 아이템으로 눈에 띈다.

그밖에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5억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2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2010년 광주에서 치러지는 제19회 전국무용제에 4억원이 지원되며 문화재 분야에서는 지방문화재 기록화 사업(3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근린공원 인근에 '운암도서관'을 2011년 개관키로 하고 사업비 12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3억4천만원)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임방울국악재단 등이 사용할 옛 전남도체육회 건물 리모델링(20억원) 사업도 본격 진행된다.

▲지역 문화 인프라 확대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광주문예회관 옆에 위치한 옛 시립미술관 자리는 최근 기증이 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미술품 수장고와 전시실로 활용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증심사 자락에 들어서는 전통문화관 건립(36억원)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또 현대극장 등을 활용한 '근·현대 건축물 문화거점 재생 사업'으로 13억원을 책정했으며 아시아문화예술교류센터(9억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설 확충비용으로 40억원을 확보했다.

지속 사업들도 눈에 띈다. 사랑티켓은 1억원에서 2천만원이 늘어난 1억2천만원이며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3억6천만원) 예산도 소폭 늘었다.

또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30억원이 투여되며 올해 행사를 개최하려다 불발에 그친 국제아트페어(2억원)는 재추진된다. 그밖에 '우리가락 우리 마당 야외 상설 공연'(1억 8천만원), '문화원형 발굴을 위한 미술총서 발간 지원'(7천만원) 사업등은 계속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총 '광주예술문화상' 18명 수상

대상에 문병오·최영화·최규완·임관표씨

문병오 대표

최영화 교수

최규완 부회장

임관표 교장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17일 '2009 광주예술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술문화상 대상과, 신인상, 공로상 등 18명을 선정했다.

예술문화상 대상에는 문병오(66) 문포토아트 대표와 최영화(47) 송원대학 교수, 최규완(56) 광주연예협회 부회장, 임관표(61) 장덕고교 교장 등 4명이 선정됐다.

신인상에는 홍은진(29·전남도립국악단원) 이창훈(39·화가) , 임준형(42·광주연극협회 사무국장)씨가 선정됐으며, 정광민(59·건축사)씨 등 11명이 공로상을 받는다.

대상에는 상패와 및 상금 100만원, 신인상에는 상패 및 상금 50만원, 공로상에는 공로패가 수여된다.

시상식과 예총합동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사업부 강당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잠월미술관 주최 규슈 미술여행 '인연'展

일본 언론·관람객 사로잡았다

전시·활동 상세 보도

美術談議やスケッチ

別府と韓国の芸術家が交流

韓国の光州と今年姉妹都市となった別府市で、両国の作家による美術家交流が30人ほどが参加して、成果の発表会を行ったようで、韓国の産経新聞の北光宏編集長は「作品から

清涼フルートと響き合っている作品を鑑賞する出席の方々

日美術談議などが行われた。

一行は市内で開かれている第2回別府フェスティバル2009の会場にも招われ、現在も若手作家が制作活動を続けている市内末広町の廃校アパートを訪問。「つくつくやっくらい」は同美術家集団で、美術談議、スケッチなどを通じて、韓国国内でも注目される作家集団。

광주일보사와 함평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이 공동 주관하고, (주)조이트래블(대표이사 최금환)의 후원으로 일본 규슈 지방 오이타현 벳푸시 미나토 팔레트 에서 열리고 있는 '인연'(11월29일~2010년1월10일)전이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일 작가 교류를 위해 광주·전남 작가 15명이 일본을 찾은 '규슈 미술여행'(11월28일~1일)의 일환으로 열렸다.

참여작가는 이혜숙, 채종기, 김종안, 고영준, 송진영(이상 서양화), 김송근, 박문수, 김광옥(이상 한국화), 김순희, 박영복, 정희창(이상 도예), 박태후, 임혜숙(이상 문인화), 서재경(서예), 김현덕(천연염색)씨 등이다.

이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한국화, 서양화와 다양한 도예 작품을 출품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규슈 지방 유명 일간지 오이타 합동신문은 최근 지면(사진)을 통해 이번 전시와 한국 작가들의 일본 내 활동을 취재·보도했다.

또 전시 장소가 벳푸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국제관광항에 위치해 있어 일본 현지에 지역 미술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미나토 팔레트 사카모토 큐레이터는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일본 현대 미술과는 사뭇 다른 한국 미술의 상상력에 놀라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잠월미술관과 벳푸의 창작스튜디오인 '두근두근 아파트'는 내년에 광주 교류전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전을 열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황성규 플루트 독주회

18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황성규(사진·전남대 음악학과 교수) 독주회가 18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프랑스 음악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생상의 '로망스', 미요의 '소나타 작품 76', 포레의 '꿈을 꾼 후에' '시칠리아노' '자장가' '파반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무께의 '소나타-목신을 위한 플루트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또 이창훈·이수연·신정문·박문경씨가 함께 '플루트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을 선사한다.

전남대와 단국대 대학원을 거쳐 독일 아헨 국립음대를 졸업한 황씨는 파리 에꼬노르말 고등음악원 오케스트라지휘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으며 지휘 공부도 하고 있다. 현재 타파텔 플루트 오케스트라 리더, 모나무르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 중이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NS금관5중주 연주회

20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에서 활동중인 CNS금관5중주단이 'Brass in Cinema'를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20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유신(트럼펫), 추선호(트럼펫), 함인호(호른), 서용일(트롬본), 김세훈(튜바)씨로 구성된 CNS금관5중주단은 음악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는 '80분간의 세계 일주' 등 다양한 기획공연을 열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씨네마천국'의 메인테마,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인디애나존스', '쉰들러 리스트' '사운드오브 뮤직' , '여인의 향기'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음악을 관악곡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또 경쾌한 캐롤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연주회는 해설과 함께 열리며 영화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3547-66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